

땅값, 10년만 최대 상승 보유세 부담도 '굉충'



등)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최근 10년 중 땅 값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 특히 상가, 사무실 등 건물이 들어선 토지(별도합상 대상)보다 개발되지 않은 땅(종합합산 대상)의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 인상을 확정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6.28% 상승했다. 이는 2008년(1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1%) •세종(9.1%) •대구(9%) •울산(8.5%) •광주(8.2%) •경남(7.9%) •경북(7.1%) •강원(7%) •서울(6.8%)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경기도의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 올라 전국 시·도 중에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자체가 결정하는 각 필지별 땅 값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단위면적(3.3m²당)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5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지난해보다 7.7% 많은 8,139만 원 가량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된다.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보였다. 서귀포시 서흥동의 한 상가건물은 공시지가 2억7,6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상승했다. 보유세도 전년 대비 17.5% 오른 73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땅 값이 비쌀수록 조세 부담이 낮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다주택, 고가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잡는 군 체력검정 올해 들어서만 2명 숨져

군 체력검정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 '이데일리'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올해 체력검정 과정에서 육군 부사관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체력검정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군인과 군무원 모두가 매년 받아야 한다.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3km달리기 등 3종목을 치러야 한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평가기준은 다르다. 31~35세 남군의 경우 팔굽혀펴기 68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80회 이상, 3km달리기 13분 이하야 '특급' 판정을 받는다. 각각 43회 이하, 56회 이하, 16분37초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같은 나이의 여군은 각각 31회 이상, 66회 이상, 15분36초 이하면 특급이다. 19회 이하, 41회 이하, 19분56초 이상이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합격 등급은 특급과 1~3급까지다. 기준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완화된다. 군인과 비교하면 군무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체력검정 결과는 장기복무 군인 선발 심의나 승진심사 등 인사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군인과 군무원들

이 체력검정에 목을 매는 이유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 '경고'를 받는다. 2~3년간 연속 불합격하면 '현역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육군의 경우 특급이나 1급을 받지 못하면 연내에 또 체력검정을 해야 한다. 한 종목이 불합격할 경우에도 3종목 모두 연내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체력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에도 2명의 육군 부사관이 체력검정 도중 사망했다. 그 전에도 공군 장교 등 세 차례 사망사고가 더 있었다. 체력검정 관련 사망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군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망사고가 부쩍 늘어난 건 2010년 체력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라는 게 군 관계자들 얘기다. 당시 체력검정 종목 중 1.5km 달리가 3km로 늘어났다. 특급~4급까지였던 합격선도 이 때부터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었다.

한 현역 군인은 "등급을 세분화 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격과 불합격 정도로만 평가해도 부대원의 체력단련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